

# 암 생존율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과 역학적 사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 온라인 설문을 중심으로

## Discrepancies Between Public Perceptions and Epidemiological Facts Regarding Cancer Survival Rate in Korea : An Online Survey

김재우\*, 강정규\*\*, 김성호\*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청주대학교 의료경영학과\*\*

Jae-Woo Kim(woo8809@naver.com)\*, Jung-Kyu Kang(ssusi@cju.ac.kr)\*\*,  
Sung-Ho Kim(kimsungho@yonsei.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중심으로 5대 암에 대한 대중의 5년 생존율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역학적 사실과 비교하고 암 생존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는 2016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단면 인터넷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총 354명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연구대상자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적 사실과의 비교를 위한 히스토그램 제시, 연구대상자의 5년 생존율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생존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역학적 사실보다 낮게, 간암의 생존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역학적 사실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암 진단유무, 연령, 규칙적인 운동유무가 5년 생존율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암 생존율 | 대중의 인식 | 역학적 사실 | 불일치 | 온라인 설문 |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which factors affect the public perceptions of the survival rate of cancer.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s the public perception for 5-year survival rates of five major cancer(stomach, colorectal, liver, breast, uterine cervix) and actual epidemiological fact thereof. Data was collected from 19th to 24th April 2016 through online cross-sectional survey on 354 people.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istograms were presented for the comparison with the epidemiological fac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subjects tended to aware the survival rates of stomach cancer, colorectal cancer, breast cancer, and uterine cervix cancer as lower than they epidemiologically represented. Finally, the factors that substantially affect the perception of 5-year survival rates were revealed as the experience of diagnosed as cancer, the age, and whether the subject regularly involved in a workout.

■ keyword : | Cancer Survival Rate | Public Perception | Epidemiological Fact | Discrepancy | Online Survey |

## I. 서론

임상 진단의 개선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암 환자는 과거에 비해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여러 국가의 의료 공급자, 학자, 정책결정자들은 단지 생존율이 아닌 암 생존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1-3]. 하지만 전 세계 일반 대중에게 있어, 암은 여전히 두려움을 불러넣는 질병으로 남아있다[4][5]. 또한 ‘암’이라는 용어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죽음과 관련된 경우로 자주 인식 된다[6]. 실제로 2014년 한국인 사망원인을 보면, 총 사망자는 267,692명이었고 이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6,611명으로 전체사망의 28.6%를 차지하여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였다[7].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로 2001-2005년 생존율 53.8% 대비 15.6% 향상되었다. 특히 암 생존율 통계 추이를 보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8].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암 발병인 3명 중 2명이 발병일로부터 5년 이상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이 암을 일종의 사형 선고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연구진은 암 생존율에 관한 역학 데이터가 한국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한국 대중은 역학 데이터보다 5년 생존율을 과소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한국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12년 건강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대중의 암 발생률 및 암 생존율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9]가 유일하다. 이 외에 암 진단 고지에 대한 암 환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10]와 간호사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암 환자 인식에 관한 연구[11], 일부 농촌지역 주민과 수도권 지역 암 전문병원 내원 환자의 암에 대한 인식 비교를 수행한 연구[12], 1개 대학교 학생들의 암에 관한 인식도 설문조사 연구[13]는 있었으나, 한국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에 대해 다른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

에 대해 다른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14]. 뿐만 아니라 대중의 암 생존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의 경우는 암 생존율 인식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수명 예상이나 확률과 관련한 설문을 수행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의 암종인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중심으로 5대 암에 대한 5년 생존율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실제 역학 데이터와 비교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012년 선행연구[9]에서는 5대 암 외에 갑상선암, 폐암, 전립선암을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에서 실시 중인 5대 암 검진사업의 암종인 5대 암만을 다루었고, 선행연구[9]에서는 건강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암 병력이 있는 사람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암 진단유무가 암 생존율 인식에 미치는 요인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단면 인터넷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참가자는 설문조사 기업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등록된 사람들로, 암 병력에 관계없이 무작위 표본으로 이번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 등록자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동일한 배경을 가진 다른 등록인을 채택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2016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354명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암 생존율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연구진이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청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1041107-160328-HR-004-01). 설문 문항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5대 암

에 대한 참가자들의 5년 생존율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참가자들은 5%씩 증가하는 20개 답변 옵션 중 자신이 인식하는 카테고리(예: 1-5%, 6-10%, 96-100%)를 선택하였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건강행태(음주, 흡연, 규칙적인 운동)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서는 참가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해 질문하였다. 기본적인 성별, 나이, 결혼상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ver.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의 절차로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5대 암 생존율에 대한 인식과 역학 데이터의 비교를 히스토그램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5대 암 생존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180명(50.8%), 남성이 174명(49.2%)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9.5세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하가 245명(6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136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03명(57.3%)으로 미혼 136명(38.4%)보다 많았다. 대부분의 응답자 330명(93.2%)은 암에 걸렸거나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24명(6.8%)은 암에 걸렸거나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 형제자매, 자녀 중에 암에 걸렸거나 암 진단을 받은 응답자는 117명(33.1%),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237명(66.9%)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54)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성	남	174(49.2)
	여	180(50.8)
연령	19-29세	82(23.2)
	30-39세	90(25.4)
	40-49세	92(26.0)
	50세 이상	90(25.4)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3)
	고등학교 졸업	55(15.5)
	대학교 졸업	245(69.2)
	대학원 졸업	53(15.0)
결혼상태	미혼	136(38.4)
	결혼	203(57.3)
	별거/이혼	13(3.7)
	사별	2(.6)
암 병력	없음	330(93.2)
	있음	24(6.8)
가족력	없음	237(66.9)
	있음	117(33.1)
계		354(100.0)

### 2. 암 생존율에 대한 대중의 인식

[그림 1]은 5대 암에 대한 응답자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 데이터의 비교를 위한 히스토그램으로, X축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Y축은 응답자의 수를 나타낸다. 수직 직선은 2009-2013년 5대 암의 역학적인 5년 생존율을 나타내며, 수직 점선은 응답자의 5년 생존율 응답 평균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 데이터 사이에서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17.0%, 대장암 26.7%, 유방암 27.9%, 자궁경부암 18.7% 만큼 역학 데이터 보다 5년 생존율을 낮게 인식하였으며, 간암의 경우 15.2% 만큼 역학 데이터 보다 5년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였다. 간암의 경우, 다른 암종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암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응답자들이 암 생존율에 대해 중간 정도로 대답하였고 간암의 실제 5년 생존율이 나머지 암종과 비교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간암만 실제보다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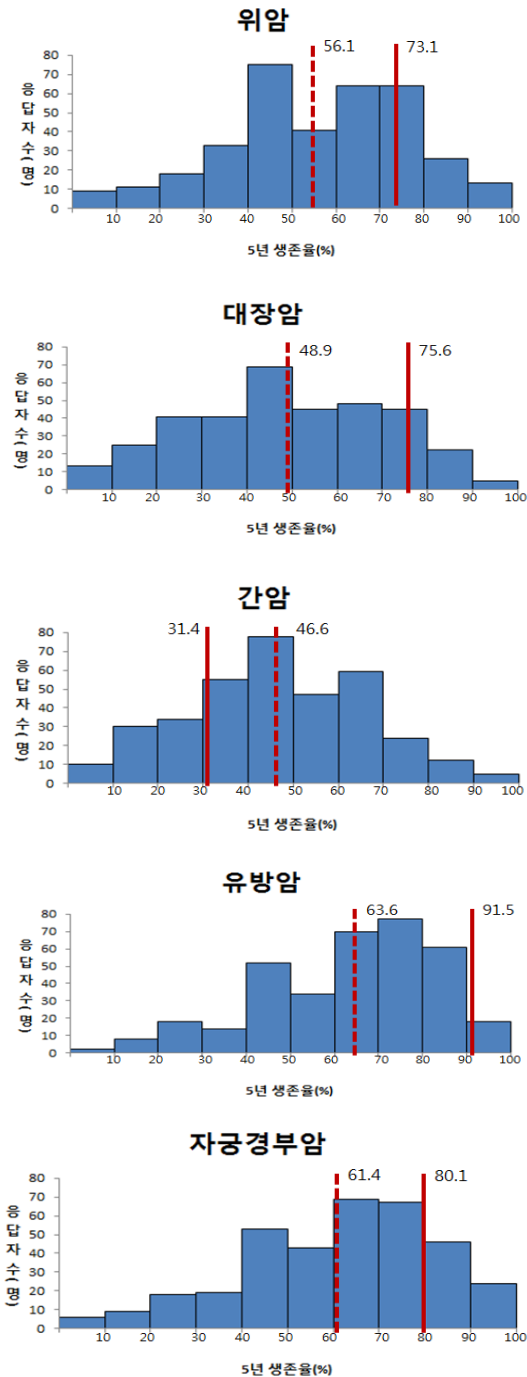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 데이터와의 차이

### 3.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중의 5대 암에 대한 5년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부 암에서 응답자의 암 진단유무(위암, 대장암, 간암), 연령(위암, 자궁경부암), 규칙적 운동유무(자궁경부암)가 5년 생존율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암의 경우,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5년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였다. 대장암과 간암의 경우,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5년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였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연령이 높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5년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였다.

표 2. 암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성(1=남자; 0=여자)	-.033 (.449)	.010 (.517)	.088 (.475)	.031 (.455)	-.065 (.468)
연령(세)	.293*** (.024)	.091 (.028)	.098 (.025)	.089 (.024)	.201** (.025)
결혼상태(1=결혼, 별거/이혼, 사별; 0=미혼)	.099 (.535)	.088 (.616)	.038 (.566)	.133 (.542)	.109 (.557)
교육수준(1=고등학교 졸업 이하; 0=대학교 졸업 이상)	.026 (.562)	-.013 (.647)	-.075 (.595)	.015 (.570)	-.021 (.568)
건강보험(1=건강보험; 0=의료급여)	.025 (.867)	-.012 (.998)	-.016 (.918)	.096 (.879)	.091 (.904)
암 병력(1=있음; 0=없음)	.161** (.827)	.126* (.952)	.137* (.875)	.093 (.839)	.095 (.862)
가족력(1=있음; 0=없음)	.054 (.429)	.038 (.506)	.055 (.465)	.091 (.445)	.082 (.458)
흡연(1=흡연; 0=비흡연)	-.068 (.512)	-.055 (.589)	-.051 (.541)	.007 (.519)	-.021 (.533)
음주(1=음주; 0=비음주)	-.015 (.533)	-.003 (.613)	.058 (.564)	-.013 (.540)	.004 (.555)
규칙적 운동(1=함; 0=안함)	.066 (.411)	.092 (.473)	.004 (.435)	.101 (.417)	.106* (.428)
주관적 건강	.061 (.287)	.007 (.330)	.030 (.304)	.018 (.291)	-.014 (.299)
R <sup>2</sup>	.192	.060	.054	.094	.139

\*p<0.05. \*\*p<0.01 \*\*\*p<0.001.

####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의 암종인 5대 암을 중심으로 5대 암에 대한 대중의 5년 생존율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역학 데이터와 비교하고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대 암에 대한 대중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 데이터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을 역학 데이터 보다 낮게 인식하였으며, 간암의 5년 생존율은 역학 데이터 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한국 대중은 역학 데이터 보다 5대 암의 5년 생존율을 과소평가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실시한 2012년 선행연구[9]와 일치하는 결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같이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실제보다 생존율을 낮게 인식한 반면, 간암과 같이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암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였다. 2013년 대한간학회가 전국 15~69세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간암의 위험요인인 B형간염과 C형간염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15], 응답자의 45.4%가 B형간염 검사를 한 적이 없거나 검사를 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B형간염 예방접종률은 43.3%에 불과하였다. 또한 C형간염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0.4%로 매우 저조하였다. 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암의 생존율이 나머지 암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간암의 위험요인인 B형간염과 C형간염의 대중의 인식과 예방접종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간암 생존율에 대해 중간 정도로 대담한 조사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검자의 암 생존율에 대한 인식과 검사 참여에 대해 조사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생존율에 대한 과소평가는 낮은 검사 참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16][17], 환자의 불안을 줄이는데 있어서 생존율에 대한 과소평가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데, 이를 통해 치료 결정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14]. 또한 지나치게 비관적인 믿음은 개인의 치료 선택에 방해가 된다[14].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9] 결과를 토대로 대중의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암 예방 및 치료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암 검진이나 암 치료를 위한 상담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실제적인 위험이나 생존율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해주고 교육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의 5년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암 진단유무(위암, 대장암, 간암), 연령(위암, 자궁경부암), 규칙적인 운동유무(자궁경부암)가 5년 생존율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5년 생존율에 대해 높은 평가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았다. 국내에서 실시한 2012년 선행연구[9]는 건강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건강상태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유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암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지만 그 어떤 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암 진단유무와 규칙적인 운동유무를 고려하여 연령과 함께 암 생존율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한 것은 2012년 선행연구[9]와 차별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암 생존율 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암 예방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18][19] 결과, 연령이 높고 현재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며,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 암 예방적 건강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연령이 높고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며,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현재 건강상태가 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방적 행위를 많이 하여 암 생존율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높고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고 실질하여 암 예방적 행위의 빈도가 높아지고 암 생존율 인식이 높은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암 진단유무와 연령, 규칙적인 운동유무가 5년 생존율 인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암 진단유무, 연령, 규칙적인 운동 등의 요인과 암 생존율 인식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설문조사 기업에 등록된 사람들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한국 대중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기타 조건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제시된 요인 외에 5년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자가 선정한 일부 요인만을 다루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중의 5대 암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적 사실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함을 밝혔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대중의 인식과 역학적 사실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합리적인 암 예방 및 치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암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 및 암과 관련한 오명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M. Hewitt, S. Greenfield, and W. Stovall, *From Cancer Patients to Cancer Survivor*, National Academies Press, 2006.
- [2] N. M. Aziz and J. H. Rowland, "Trends and advances in cancer survivorship research: challenge and opportunity," *Seminars in Radiation Oncology*, Vol.13, No.3, pp.248-266, 2003.
- [3] President's cancer panel, "A European Dialogue," Bethesda: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4.
- [4] R. Borland, N. Donaghue, and D. Hill, "Illness that Australians most feared in 1986 and 1993,"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18, No.3, pp.366-369, 1994.
- [5] M. E. Burman and C. Weinert, "Rural dwellers' cancer fears and perceptions of cancer treatment," *Public Health Nursing*, Vol.14, No.5, pp.272-279, 1997.
- [6] R. J. Donovan, G. Jalleh, and S. C. Jones, "The word 'cancer': reframing the context to reduce anxiety arous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Vol.27, No.3, pp.291-293, 2003.
- [7] H. Y. Shin, J. Y. Lee, J. H. Song, S. M. Lee, J. H. Lee, B. S. Lim, H. R. Kim, and S. Huh, "Cause-of-death statistics in the Republic of Korea, 2014,"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59, No.3, pp.221-232, 2016.
- [8]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from [http://www.cancer.go.kr/mbs/cancer/subview.jsp?id=cancer\\_040301000000](http://www.cancer.go.kr/mbs/cancer/subview.jsp?id=cancer_040301000000)
- [9] S. Y. Kim, D. W. Shin, H. K. Yong, S. Y. Kim, Y. J. Ko, B. L. Cho, Y. S. Lee, D. H. Lee, K. H. Park, and J. H. Park, "Public Perceptions on Cancer Incidence and Survival: A Nation-wide Survey in Korea,"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Vol.48, No.2, pp.775-788, 2015.
- [10] 전인희, *암 진단 고지에 대한 암 환자의 인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1] 조인향, 김분한, "암환자 인식에 관한 연구 - 간호사·의사를 중심으로-", 대한중앙간호학회, 제1권, 제2호, pp.252-253, 2001.
- [12] 이해현, *일부농촌지역주민과 수도권지역 암 전문병원 내원환자의 암에 대한 인식 비교*, 경희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3] 최인근, 서희연, 설혜령, 최종권, 성화정, 박경화, 윤소영, 오상철, 서재홍, 최철원, 신상원, 김열홍, 김병수, “고려대학교 학생에서의 ‘암에 관한 인식도’ 설문 조사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제6권, 제2호, pp.172-176, 2003.
- [14] R. J. Donovan, O. B. J. Carter, and M. J. Byrne, “People’s perceptions of cancer survivability: implications for oncologists,” The Lancet Oncology, Vol.7, No.8, pp.668-675, 2006.
- [15] 대한간학회, *한국인 간질환 백서*, 도서출판 진기획, 2013.
- [16] G. C. Harewood, M. J. Wiersema, and L. J. Melton, “A prospective, controlled assessment of factors influencing acceptance of screening colonoscopy,” 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Vol.97, No.12, pp.3168-3194, 2002.
- [17] D. N. Perlman, M. A. Clarke, W. Rakowski, and B. Ehrich, “Screening for breast and cervical cancers: the importance of knowledge and perceived cancer survivability,” Women & Health, Vol.28, No.4, pp.93-112, 1999.
- [18] 양아기, “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행위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 제22권, 제1호, pp.59-68, 2015.
- [19] 노현승, *암 가족력이 개인의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저 자 소 개

김 재 우(Jae-Woo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응용통계학과(보건학사, 경제학사)
  - 2013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 석박통합 수료)
  - 2013년 9월 ~ 2016년 8월 :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 연구원
  - 2016년 9월 ~ 현재 : 가천대 길병원 유헬스케어센터 연구원
- <관심분야> : 병원경영, 보건정책, 암검진

강 정 규(Jung-Kyu Kang)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사)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 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친환경병원, 병원경영, 보건정책

김 성 호(Sung-Ho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졸업(경제학사)
  - 2009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보건학 석사)
  - 2013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졸업(보건학 박사)
  - 2006년 11월 ~ 현재 : 성모의료재단 재단이사
  - 2014년 ~ 현재 : 미국 St. Louis 대학교 Visiting Professor
  - 2015년 ~ 현재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의료경영, 병원인사조직, 의료SCM